



방제조합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

법개정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 육성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해 기름 등 유류오염방제전문기관인 해양오염방제조합을 종합적 해양환경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해양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해양오염방제조합의 해양관리공단 전환을 정책과제로 설정해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국무조정실 주관) 및 해양환경보전종합5개년계획(수질개선키획단 주관)에 따라 추진해왔다.

현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전국에 11개 지부와 13개 사업소를 설치해 △유류오염방제사업 △항만예선 및 구난사업을 포함한 기중기 사업 △수중침적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18척의 청항선(항만청소선)과 13개 폐유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 설립되는 해양관리공단은 유류오염방제 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수중침적폐기물 및 해상부유해양쓰레기 수거작업 등 해양환경보전사업,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OPRC-HNS 의정서에 따른 위험·유해물질의 오염사고 등 각종 오염물질의 해상 유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된다.

공단은 나아가 해양환경 및 방제에 관한 조사·교육·훈련·홍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등 각종 해양환경개선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해양부는 지난해 8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해양환경관리전문기관의 설립방안'을 토대로 해양관리공단을 효율적이고 안정화된 전문조직으로 육성

하기 위한 최적 조직운영, 재원 및 주요사업 확대 등에 관한 세부 사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해양관리공단은 기존 방제조합의 전국적인 조직망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일반 민간부문에서 수익성 미확보로 쉽게 진입할 수 없었던 해양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등 각종 해양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현대 계동사옥으로 이전 전화 종전번호에 국번만 3674로 변경

해양수산부는 5년동안의 서울 충정로 시대를 마감하고 계동 현대그룹 사옥에 새 등지를 들고 3월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해양부는 그동안 여수세계박람회유치기획단 등 각종 테스크포스 팀제가 새로 도입돼 사무실 공간이 추가로 필요한데다 충정로 청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청사이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2월 25일부터 시작해 2월 28일 해양정책국을 마지막으로 이사를 마무리하고 3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신청사의 사무실은 8층에서 10층까지 3개층을 사용하며, 전화번호는 기존 충정로 청사의 전화번호에 국번만 3674로 변경됐다.

해양부 현대사옥 신청사는 보다 좋은 근무여건과 주변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다.

한편 오거돈 해양부 장관은 청사이전과 관련,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한 만큼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좋은 근무여건에서 일하는 만큼,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올 연말에는 해양수산 각 분야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